

여기, 자랑스러운 조선인 혁명가가 있다! 님 웨일즈의 『아리랑』



“스무 살에 혁명가가 아니라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마흔 살에 혁명가라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

8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이라면 특히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

다. 처음, 그 혁명이 어떤 모습

이어야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뀌야 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바뀌어야 하는가.

다! -- 이미 존재해 온 것들, 오래 있어 왔던 것들,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거기 있었던 모든 것들,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음습하고 낡은 역사, 늘 패배하고 구걸만 해 온 역사, 숨기고 감추고 버리기에만 급급했던 역사. -- 그런 역사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청년의 가슴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백범의 상해 임

시정부마저 그럴진대, 이승만의 먼 나라 독립청원운동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 공백을 속 시원히 메워 줄 역사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은밀히, 입에서 입으로, 행과 행 사이의 여백을 읽어내는 눈길을 통해, 전혀 새로운 역사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4년 동녘 출판사에서 『아리랑』을 펴냈을 때, 충격은 엄청났다. 도대체 이런 역사가 있었던 말인가! 도대체 이토록 자랑스러운 혁명가를 우리는 왜 여태 몰랐단 말인가!

책을 읽으면서 나는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는지 모른다. 그가 겪는 간난신고의 세월이 더없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그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가 혁명을 위해 사랑마저 포기할 때, 나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으리라 생각하면서도, 그가 옳다고, 혁명은 사랑 너머에 있는 거라고 믿을 정도였다.

김산. 그는 시대가 강요하는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은, 말하자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혁명가의 전형이었다.

“그는 내가 7년 동안 동방에 있으면서 만났던 가장 매력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추종자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사물을 고찰하였다. 그는 조선혁명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므로 이것은 아주 당연하게 느껴졌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중국과 조선의 현대사를 주조해낸 저 수많은 대비극의 타오르는 불덩이(白熱) 속에서 단련되고 형성된 사나이였다. 또한 단련된 의지와 결의의 강철 같은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감각과 지각을 갖춘 정적(情的)인 존재로서 시련 속에서 나타난 사나이였다.”

도대체 조선에서 온 한 사내의 어떤 점들이 탁월한 기록자 님 웨일즈의 펜 끝마저 흔들리게 했던 것일까.

웨일즈의 펜 끝마저 흔들리게 했던 김산

1905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난 그는 3·1운동을 겪은 뒤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운동에 눈을 뜬다. 1921년에는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는데, 그 후 그는 생의 거의 전 시기를 중국에서 보내게 된다. 처음 그는 김약산의 의열단 운동에 매료당했으나 1922년 ‘붉은 승리’ 김충창(본명 김성숙)을 만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마침내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다. 그 후 그는 늘 급박하게 전개되는 중국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광둥 코문의 승리와 패배, 연이은 해륙풍 소비에트 전투와 탈출 과정에서 그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맞는다. 그는 다시 당 조직가로서 상해와 북경, 만주 등지에서 비밀 활동을 수행한다. 1930년 경찰에 체포된 그는 조선으로 넘겨져 엄청난 고문을 당한다. 그렇지만 끝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이듬해 4월 석방되어 다시 중국으로 건너온다. 그때부터는 그를 배신자 혹은 수정주의자로 모는 비열한 모함과 맞서 싸우는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그럼에도 그는 민중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1936년 7월 상해에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이 창설되면서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항일연합전선운동이 시작되자, 그는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다가 조선 혁명이 대표로서 선발되어, 중국 홍군의 혁명 근거지 연안으로 파견된다. 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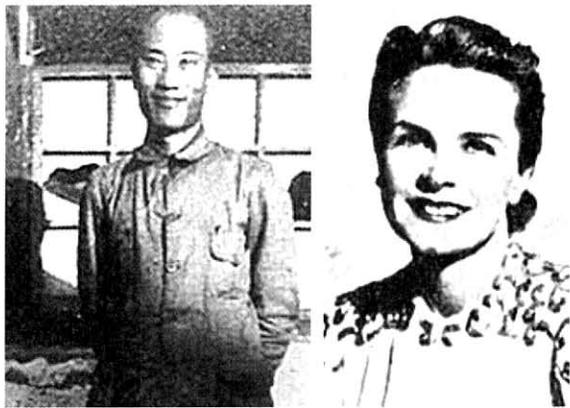
연안의 항일군정대학에서 물리학, 화학, 수학, 일본어, 한국어 등을 가르치던 그는 마침내 님 웨일즈를 만나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을 고백한다.

김산은 물론 가명이었다. 따라서 『아리랑』을 읽고 난 뒤에는 그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에서는 그가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그러므로 『아리랑』은 님 웨일즈의 ‘소설’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시 한국의 사학계는 이 방면에서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독립운동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조선 공산주의운동사, 특히 만주와 중국 대륙을 무대로 펼쳐졌던 공산주의운동사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댄 상태였다.

어쨌거나 『아리랑』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 상황을 경험하고 있던 이 땅의 무수한 젊은이들에게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파되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아리랑』은 상당 기간 혁명의 산 교과서로 간주되었다.

“세 사람 모두 노동자였는데, 단정하고 지적인 얼굴로 보아 학생 같아 보였던 나유매라는 소녀는 윤기 있는 칠혹 같은 머리를 짧게 자른, 대단히 예쁜 소녀였다. 그들은 앞으로 일으킬 총파업에 대한 선전 활동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거리를 끌려 다니면서도 그들은 공산청년 인터내셔널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으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슴을 짝 펴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139쪽)

“자네도 저 청년만큼이나 어리고 순진하군. 계급적 정의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전의 필연적인 수단이야. 의심나는 경우에는 보다 적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이 죽여야 해. 자네는 지주들이 지배하였던 해륙풍의 실정과 그들이 자행한 잔인한 짓거리를 모르고



연안 시절의 김산(왼쪽)과 남 웨일즈(오른쪽)

있어.”(163쪽)

“나는 진짜로 기침을 하고 싶었던 적이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여태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다. 그 순간에는 생사야 어찌 되었건 목구멍의 마비를 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나는 땅에 납작 엎드려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꼭 틀어막고, 숨이 막혀 늘어질 정도로 스스로 목을 졸랐다. 결국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승리하였다.”(179쪽)

“혁명은 하나의 추상물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적 요소가 혁명에 유기적인 단결-동지간의 충성과 더욱 커다란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201쪽)

김산이 걸어간 길은 우리가 전두환 파쇼 체제 하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허구와 같은

길이였다. 그래도 나와 같은 얼뜨기 맑시스트들은 『아리랑』을 덮은 뒤에도 한동안 김산의 생을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환각 증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환각 증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 해

이태 전, 문학기행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김산이 활약했던 북경은 물론이고 석가장이며 연안까지 여정에 넣었다. 특히 연안이 인상적이었다. 서안에서 밤 기차를 타고 8시간인가를 달려 나타난 연안은 그 험한 여정만큼 중국혁명의 본산이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풍겨주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를 비슷한 연배로 보낸 우리 일행은 이역에서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간 김산을 마침내 찾아왔다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마오가 ‘중국의 붉은 별’(남 웨일즈의 남편 에드가 스노우가 쓴 중국혁명사 제목)이듯, 김산은 우리 청년의 한때 가슴에 깊이 새겨진 붉은 별이었기에!

나중에 알려진 바이지만, 김산은 장지락(張志樂), 그를 모함한 것으로 나오는 ‘한’은 한위건(韓偉建)이었다. 동녘출판사는 90년대 들어 개정판을 내면서 남 웨일즈의 ‘한국어판 서문’을 첨가했고, 그 후에는 리영희 교수의 추천사, 조지 토튼 교수의 ‘해설’까지 실어 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이들은 이회성과 미즈노 나오끼가 엮은 『아리랑 그 후』(학민사, 1986) 그리고 한홍구 교수의 소설 『못 다 부른 아리랑』(황해문화, 2003년 여름호)과 짧은 논문 ‘아리랑의 최후를 아는가’ 등을 참고하시라.

김남일 (소설가)

- 1957년 경기 수원 출생 · 1983년 <우리 세대의 문학>에 단편 『배리』로 등단
- 장편소설 『청년일기』 『국경』(전 7권), 작품집 『일과 밥과 자유』 『친하무적』 『세상의 어떤 아침』, 장편동화 『떠돌이 꽃의 여행』과 평전 『김상진』을 집필
-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계간 『실천문학』 주간,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회장 역임

함께 만드는 희망세상

<구독료 납부 안내>

『희망세상』은 민주화운동 정신에 참여한다는 뜻을 살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무료로 보급하던 것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 구독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자발적 유료화로 전환하려 합니다.

<구독료는 연간 1만 원이며 그 이상의 정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5601-04-019001

농협 013-01-298022

(예금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발적 유료화에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 사업회에서 마련하는 행사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